

투데이 칼럼

생사 넘는 탈북기

**목**숨을 걸고 국경을 넘는 탈북민들의 이야기는 영화로 제작될 만큼 극적인 경우가 많다. 2000년대 초중반까지 주요 탈북 경로로 꼽혔던 '몽골 루트'를 소재로 한 영화, '남으로 가는 길'이 최근 상영회를 열었다.

한국과 몽골 두 나라의 제작사와 배우들이 참여해 생사를 넘나드는 탈북 과정을 실감나게 그려주는 평가를 받는다. 이는 어느 탈북민 가족의 실제 이야기를 바탕으로 촬영했다.

구름 한 점 없는 하늘 아래, 사막을 홀로 걷는 한 남성이 나온다. 죽음을 다해 산처럼 높은 모래 언덕 위에 올라서 보지만, 눈앞엔 광활한 사막이 끝없이 펼쳐진다.

작열하는 태양이 지고 철쭉 같은 어둠이 찾아온 시간에 정신을 잃고 쓰러진 남성을 유목민들이 발견해 보살핀다.

깨어난 남성은 간절히 도움을 호소한다. "북조선에서 온 강명수인데, 누명 쓰고 역적패당으로 몰려서 남녘땅으로 가고 있소. 아이가 물을 잘못 마셔서 많이 아픈 상태요. 이리다 죽을지도 모르니 좀 도와주세요."

그는 가족과 함께 죽음을 탈북 루트로 알려진 몽골 고비 사막을 선택한 탈북민이다. 최종 목



정복규  
논설위원

적지는 대한민국이다. 이 영화는 몽골 고비 사막에서 40일간 8천 km를 이동하며 약진교루 끝에 완성됐다.

극한의 제작 환경 속에서도 제작진이 탈북이라는 소재를 내려놓지 않았던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 영화는 지난해 두 달 동안 몽골 고비 사막을 누비며 촬영했다.

탈북민들의 절박한 심정을 절절히 느낄 정도로 제작 과정은 고단하고 험난했다. 영화 속 주인공 가족들은 2005년 이른바 '몽골 루트'로 탈북을 감행했다.

'몽골 루트'는 두만강을 건너 탈북민들이 중국에서 출발해 고비 사막을 넘어 몽골에 도착한 뒤 한국으로 향했던 길을 말한다. 사막의 남쪽에서 북쪽까지의 거리가 800여 km다.

탈북민들은 죽음의 공포를 무릅쓰고 사막으로 향했다. 몽골은

사람이 함부로 들어갈 수 없는 곳이기 때문에 오히려 험한 지형을 통해 가는 것이 발각되지 않고 갈 수 있는 루트다.

철망을 두를 필요도 없는 사막의 험준한 지형들이다. 영화 속 탈북민들은 별자리에 의지해 북쪽으로 걸어 나간다. 북두칠성 자리만 기억하면 방향을 잡을 수 있다고 한다.

탈북 실화를 그린 '남으로 가는 길'은 단순히 재미와 볼거리 뿐 아니라, 탈북 과정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기 위해 노력했다.

특히 현실적으로 주인공 가족의 탈출을 돕는 몽골 유목민 돌마 할머니는, 고비 사막의 지리에 능통한 실존 인물이다.

탈북민들이 한국에 오게 되기까지는 이처럼 몽골 유목민과 국경수비대의 도움이 컸다. 예전에 몽골인들이 탈북민을 만나면 거의 100% 한국 대사관에 인도

를 해줬다. 몽골의 수도, 울란바토르에서 개봉한 영화는 몽골 관객들에게서 뜨거운 관심을 받았다.

지난 9월 몽골에서 개봉한 <남으로 가는 길>은 국경을 넘어선 우정과 연대에 대한 이야기로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한국에서도 주연 배우들과 함께 영화를 만나볼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됐다.

영화의 맥이 오르고, 이야기가 빠르게 전개된다. 반역 누명을 쓴 채 황무지 같은 사막을 건너는 일가족과 북한 보위대원과의 추격전이 나온다. 탈북민을 돕는 몽골 국경수비대의 액션 장면은 관객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는다.

절절한 가족애는 관객의 심금을 울리기도 한다. 우여곡절 끝에 구출에 성공하는 명수 가족의 이야기는 어떤 여운을 남겼을까. 영화는 배우들에게도 잊지 못할 작품이 되었다.

극 중 가족을 지키다 죽음을 맞이한 호성 역의 최준용 배우는, 이 영화가 가족의 희생으로 '자유'를 찾아가는 이야기라고 강조한다.

배우들에게 간접적인 '탈북' 경험도 크게 와 닿았다. 돌마 역을 맡은 배우, 사람토아씨는 언젠가는 남북이 화합의 길을 걷기를 바란다고 했다.

사진으로 보는 지구촌 소식

건물 잔해서 구조 작업하는 팔레스타인 주민들



지난 7일(현지시각) 가자지구 중부 누세이라트 난민촌에서 팔레스타인 주민들이 이스라엘 공습으로 파괴된 건물 잔해에서 구조 작업을 하고 있다. 팔레스타인 당국은 7일 가자지구 곳곳에 대한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최소 22명의 팔레스타인인이 숨졌다고 밝혔다.

바이든 "평화롭게 정권 이양할 것"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 7일(현지시각)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이번 대선과 관련해 대국민 연설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에 대해 "국민이 선택하면 우리는 그 선택을 받아들인다"라며 "내년 1월 20일에 평화롭게 정권을 이양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설

연체율 20대 급증

인터넷은행에서 빛을 낸 20대 고객의 연체율이 최근 급등하고 있다.

해 8월 말 기준 케이뱅크에서 신용대출을 받은 20대 이하 차주의 연체율은 4.05%였다.

이는 지난해 말 3.77%보다 약 0.28%p 오른 것이고, 3년 전인 2021년 12월 말 1.76%보다는 2.29%p 상승한 수치다. 30대 1.98%, 40대 1.63%, 50대 1.86% 등 1%대로 20대 이하와 큰 차이를 보였다.

이런 추세는 다른 인터넷은행에서도 확인된다. 카카오뱅크의 8월 말 기준 20대 이하 신용대출 연체율은 2.09%로, 전체 연령대 평균 1.03%의 2배 이상을 기록했다.

2021년 말 0.45%였던 20대 이하 신용대출 연체율은 2022년 말 1.41%, 지난해 말 1.73%에서 올해 들어 7월 2.00% 이후 토스뱅크에서도 20대 이하 신

용대출 연체율은 8월 말 기준 1.75%로 2022년 말 1.48%보다 상승했다.

청년층이 비대면으로 간편하게 대출받을 수 있는 인터넷은행에서 신용대출을 쉽게 받으면서 20대 차주의 연체율이 높아지는 것으로 보인다.

3사 중에서 케이뱅크의 20대 연체율이 타사의 2배 이상을 기록한 것은 가상화폐 거래소 업비트 연계 계좌 보유 고객의 비중이 높은 영향이라는 분석이다.

20대 연체율 급등에 따라 인터넷은행의 대출 심사 관리, 청년층의 신용 관리가 철저히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인터넷은행 3사의 8월 말 기준 신용대출 연체액은 3,944억 원으로, 3년 전인 2021년 말 675억 원 대비 약 484% 증가했다. 20대 이하의 신용대출 연체액은 같은 기간 82억 원에서 448억 원으로 440% 늘었다.

전주 동문창작소 1기 입주 작가

전주 동문창작소가 1기 입주 작가들의 창작 성과를 선보이는 결과 보고 전시 'LIFE展'이 지난 10월 18일부터 24일까지 전북예술회관 기스탁 1실에서 열렸다. 전주 동문창작소는 전주문화재단이 운영하는 곳이다.

이번 전시는 1기 입주 작가 구경아, 김효정, 박성수, 엄수현, 이가림, 이미영A, 이미영B, 이수정, 임희성 씨 등 9인의 1년 3개월에 걸친 창작 활동의 결실을 관람객들과 함께 나누었다.

작가들은 '바람, 나무, 호기심, 침묵, 피어나듯이, 산책, 우리 모두, 행복, 삶'이라는 다양한 주제를 바탕으로 했다. 각각 작가의 독창적인 예술적 해석이 담긴 작품들을 선보인 것이다.

전시와 함께 동문거리에서는 다채로운 체험 행사가 마련됐다. '오픈스튜디오'를 통해 작가들의 작업 공간을 직접 둘러볼 수 있었다.

10월 15일부터 10월 말까지는 지역 상점에서 작가들의 작품을 직접 만나볼 수 있는 '삼인삼' 이벤트 등이 진행됐다.

10월 21일부터 27일까지는 공유화실(동문길 60)에서 동문그림가게도 열렸다.

동문그림가게는 전시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었던 시민 예술가들에게 작품 전시, 홍보, 판매의 장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이번 행사에서는 전주 지역 작가 9인의 회화, 사진 등 다양한 장르의 작품을 만나볼 수 있었다. 작가들이 직접 운영하는 원데이 클래스에도 참여할 수 있었다.

전주문화재단 최라기 대표는 "LIFE展"을 통해 동문창작소의 첫 입주 작가들의 창작 여정을 시민들과 공유하게 되어 뜻깊다"며 "앞으로도 동문창작소 작가들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동문창작소의 발전을 기원한다.

전주매일 홈페이지 www.jjmaeil.com

사외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형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가려움을 속 시원하게 긁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인간중심 · 도덕중심 · 지역중심 **전주매일**